

다양성영화 '한공주' 15만 관객 이끈 힘은?

좌석 점유율은 '스파이더맨2' 능가
무력한 우리 사회 모습 투영 공감

무엇이 이토록 관객을 열광케 할까.

배우 천우희 주연의 '한공주'(사진·감독 이수진)가 29일 다양성영화로는 최단기간 15만 관객을 넘어섰다. 17일 개봉 이후 12일 만이다. 다양성영화로서는 많은 편인 200개 스크린을 확보했다고 해도 관객의 꾸준한 선택 없이는 불가능한 기록이다.

'한공주'의 흥행을 증명하는 기준치는 좌석점유율이다. 28일 기준 '한공주'의 좌석점유율은 14.1%(영화진흥위원회 집계). 같은 기간 박스오피스 1위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10.4%) 보다 점유율이 더 높다. '한공주'를 상영하는 극장의 빈자리가 더 적다는 의미다.

허남웅 영화평론가는 '한공주' 흥행의 힘을 "한국적인 상황이 많이 묻어나는 이야기에 관객이 높은 공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영화는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벌어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모티프를 얻었다. 잔혹한 실화에 바탕을 뒀지만 관객을 분노에 빠트리는 대신 무력한 사회를 체감하게 만드는 연출법으로 극 중 피해자인 한공주(천우희)를 응원하게 하는 힘을 발휘한다. 경찰도, 학교도, 가정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무력한 상황은 현재 우리 사회와 닮았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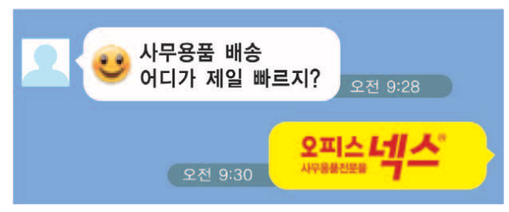
사실 '한공주'를 먼저 알아본 건 국제영화제였다. 올해 초 네덜란드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대상 등 각종 영화제에서 9개의 상을 휩쓸었다. 29일에는 제68회 영국 애딘버러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진출 소식도 전해졌다.

'한공주' 해외배급사 화인컷 서영주 대표는 "한 번 경쟁부문에 오른 영화가 다른 영화제 경쟁에 진출하기는 어려운데 '한공주'는 예외"라며 "섬세하고 진동이 큰 영화라는 평가 속에 특히 여성 바이어들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한공주' 흥행의 이면을 봐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탄탄한 배급사의 지원 탓이라는 의견이다.

전국에 19개 상영관을 갖춘 CGV 무비꼴라쥬가 배급하는 '한공주'는 개봉부터 줄곧 200개의 스크린을 유지하고 있다. 다양성영화로 분류된 작품이 대게 100개미만의 스크린에 그치는 상황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많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한공주'의 작품성은 인정하면서도 "개봉부터 스크린 200개를 확보한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전지현 드러내지 않은 선행 가슴뭉클



전지현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이틀 사이 2억원을 내놓았다. 29일 세월호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전지현은 이에 앞선 27일 저소득층 어린이 환자를 위해 써달라며 아산사회복지재단에 1억원을 기탁했다. 스포츠동아DB

세월호 참사 1억 '조용한 기부'

적십자에 왕지현 본명으로 전달
저소득층 어린이 환자에게도 사랑
사회복지재단에 수술비 1억 기탁

배우 전지현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1억을 기부한 것에 앞서 저소득층 소아 환자를 위해 1억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숨은 선행이 주목받고 있다.

29일 서울 아산병원 산하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측에 따르면 전지현은 27일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수술을 미뤄야 하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는 뜻과 함께 1억원을 기탁했다.

2월 종영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많은 사랑을 받은 전지현은 작품 종영 직후부터 대중의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을 고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아이들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온 전지현은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재단 측과 논의해 왔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의 한 관계자는 "전지현 씨가 기부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다. 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위해 또 다시 선행을 베푸는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 전지현은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싶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고 전했다.

전지현은 29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싶다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억을 기부했다. 전지현의 기부 사실은 이날 오전 '왕지현'이란 이름으로 적십자에 기부된 거액을 담당부서에서 재확인하던 중 밝혀졌다. 앞서 전지현은 2012년 결혼 당시 축의금을 전액 기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반기부터는 '도둑들'로 인연을 맺은 최동훈 감독의 새 영화 '암살' 촬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웃음으로 위로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

코미디프로 녹화·방송 재개 기약 없어
'무수입' 개그맨들 그래도 세월호 우선



"웃음으로 위로할 수 없음이 더 안타깝다."

세월호 참사의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시청자에 웃음을 선사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의 결방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 마음 놓고 웃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방송사들은 KBS 2TV '개그콘서트'(사진),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 케이블채널 tvN '코미디 빅리그' 등의 녹화재개 시기를 쉽사리 정하지 못하고 있다.

코미디 프로그램은 국가적 위기상황이나 애도 기간에 가장 먼저 결방되고 가장 늦게 정상화 된다.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개그콘서트'는 23일, 30일 예정된 녹화를 취소했고, 20일에 이어 27일 결방됐다. '웃음을 찾는 사람들' 역시 18일, 25일 결방됐고, 5월2일 역시 결방이 예상된다. 20일과 27일 결방한 '코미디 빅리그'도 녹화재개 여부가 불투명하다.

결방과 녹화취소 이면에는 개그맨들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충이 있다. 방송이 나가야 출연료가 지급되는 개그맨들에게 결방은 '무수입'을 의미한다. 일정한 방영횟수가 정해진 드라마 방영이 연기되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

더욱이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로 4월과 5월 예정된 전국의 크고 작은 행사나 대학교 축제 등이 취소 또는 축소되는 상황이 잇따르면서 외부활동마저 힘들어져 생계에 대한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그맨들은 생계걱정 보다는 실종자들이 조속히 구조되고 국민적인 슬픔이 하루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개그콘서트'에 출연 중인 개그맨들은 "생계를 걱정하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진다. 무엇보다 웃음을 주는 직업인 개그맨들이 웃음으로 위로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가수 린·엠씨더맥스 이수 9월 웨딩마치

10년 우정 쌓다 연인으로 발전

동갑내기 연인인 가수 린(이세진·33)과 그룹 엠씨더맥스의 이수(전광철·33)가 9월 결혼한다.

29일 두 사람의 소속사 뮤직앤뉴에 따르면 린과 이수는 9월19일 서울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1999년 데뷔한 린과 2000년 데뷔한 이수는 약 10년 전부터 친구로 우정을 나눠오다, 2012년 엠씨더맥스가 린의 소속사인 뮤직앤뉴로 이적한 것이 계기가 돼 연인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의 교제는 지난해 4월 알려졌고, 양가의 정식 상견례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방송에서 이수와의 애정을 스스럼없이 드러내온 린은 주위 사람들에게 "올해는 넘기지 않겠다"는 생각을 내비쳐왔다.



▲ 이수 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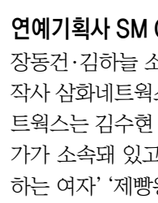
뮤직앤뉴 측은 "오랜 친구에서 연인으로, 그리고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이뤄 평생의 동반자가 될 두 사람에게 많은 축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린은 '이세진'이란 본명으로 1999년 1집을 내고 데뷔했고, 이수는 2000년 남성밴드 문차일드 보컬로 데뷔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연예뉴스 스테이션

이정재 어깨부상으로 영화 '무뢰한' 하차



배우 이정재(사진)가 어깨부상으로 영화 '무뢰한'에서 하차한다. 29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정재는 영화 '빅매치'에서 선보일 액션장면 연습 도중 어깨부상을 당했고, 17일 수술을 받았다. 이정재는 영화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촬영을 모두 마칠 때까지 수술을 미뤘다.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처음 병원에 갔을 때는 회복기간이 6주였는데 현재 석 달 정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아 '무뢰한' 하차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영화 '암살'도 회복상태를 지켜보며 출연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가수 박정현·그룹 블락비 새 음반 발표 취소



가수 박정현(왼쪽 사진)과 그룹 블락비(오른쪽 사진)가 새 음반 발표를 취소했다. 블락비는 29일 "국가적 재난에 음반활동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싱글 '잭팟' 발매 및 컴백 계획을 모두 취소한다. '잭팟' 오프라인 음반은 이미 제작된 초도 물량에 한해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수 박정현도 애초 18일로 예정했다가 세월호 참사로 잠정 연기했던 '싱크로 퓨전' 앨범 발매를 무기한 연기했다. 대신 수록곡 '그 다음해'만 디지털 음원으로 30일 발표한다.

연예기획사 SM C&C·드라마제작사 삼화네트웍스 제휴

장동건·김하늘 소속된 연예기획사 SM C&C와 드라마 제작사 삼화네트웍스가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었다. 삼화네트웍스는 김수현 문영남 조정선 강은경 이경희 등 유명작가가 소속돼 있고, '구가의 서' '결혼의 여신' '세 번 결혼하는 여자' '제빵왕 김탁구' '참 좋은 시절' 등의 드라마를 제작했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사가 보유한 원작 판권과 작가를 포함한 제작 인력, 중국 내 사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국시장을 함께 공략하기로 했다.

'신의 선물-14일' 특별출연 임지규 5월 17일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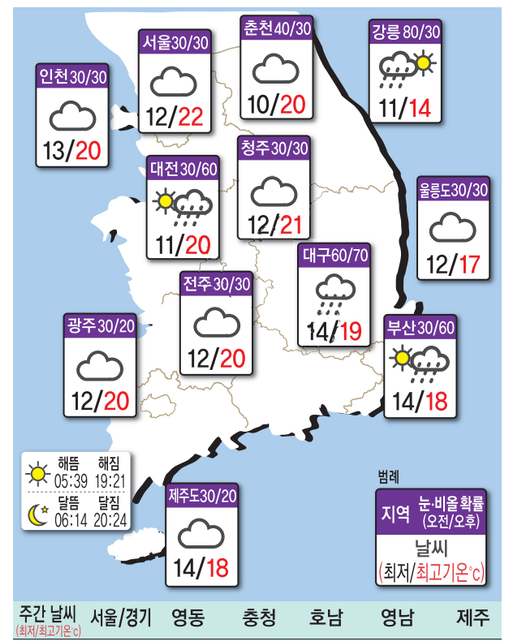


배우 임지규(36·사진)가 5월17일 연하의 여자친구와 서울시내 한 교회에서 결혼한다. 예비신부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교회에서 만나 4년 간 사랑을 키워왔다. 두 사람은 가족과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린 뒤 신혼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임지규는 최근 종영한 SBS '신의 선물- 14일'에 특별출연했으며, 영화 '저수지에서 건친 치타' '은하해방전선' '과속스캔들', MBC 드라마 '최고의 사랑' 등에 출연했다.

편집 | 박재윤 기자 parkjy@donga.com·유진한 기자 haja1787@donga.com

오늘의 날씨

4월 30일 월요일 (음력 4월 2일)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서울/경기	영동	충청	호남	영남	제주
5월 1일(목)	12/23	10/24	11/25	11/23	12/24	12/22
2일(금)	11/23	9/22	10/25	10/27	13/27	15/25

스포츠동아 | 광고문의 02 2020 1010 | 구독신청 1588 2020 |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대근 | 인쇄인 최맹호 | 편집인 이성춘 | 편집국장 양성동 | 광고국장 이승욱

대표전화 02 2020 0114 | 편집부 02 2020 1032 | 스포츠1부 02 2020 1044 | 스포츠2부 02 2020 1041 |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74 | 생활경제부 02 2020 1062 | 사업국 02 2020 1038 | 사진부 02 2020 1068

www.sportsdonga.com | (우)110-7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 2008년 3월 24일 창간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